

어리석은 자

열치있는 사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 사람다운 본성을 가진 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만그만 한 열치가 있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아닌가? 얼마전 어느 모임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는 참으로 서글픈 속쓰림을 곱씹었다. 단지 이런 현상이 나 자신의 수양이 부족한 아상(我相)의 소치이거나 자책하면서 왜 그리 가슴이 허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돈기호테나 할리 채플린 같이 순박한 인간미로 남에게 해가 되지않게, 척하고 채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재미있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결 좋은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는 내 나름대로 그 모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소의담한 너무 작은 마음의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편 생각하면 '...채 하는 사람' '...척 하는 사람' 끼리 유유상종하면서 울고 웃으며 속고 속여가면서 감칠맛나게 살아가는 것이 사바세계의 자비러니 하고 어리석은 자위를 해 보기도 한다.



황규선 <국회의원·한나라당>

“ 자기에게 이롭다면 ‘체’하고 ‘척’하는 몰염치한 세태 ”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열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심신을 추스린다면, 단팥없는 화병이요, 불없는 항구같이 쓸쓸하고 삭막한 세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돈기호테나가 ...잘난 척하고, 할리 채플린이 속매인체 하는 것 처럼 해학적인 체요, 풍자적인 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자나 실세자의 주위를 맴돌며 묘한 미소를 던지면서 어슬픈 언기로 승견(忠犬)인 체하는 군상이 우물대니 우리 사회의 이같은 현상

그런데 요즘은 훨씬 자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돈뿐이나 있는 사람이 우뚝 대는, 열치를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위계질서가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허세, 거시, 자만 등의 거

은 현상이 없어져야만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IMF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몰염치, 위선, 허세, 거시, 자만 등의 거품을 없애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들은 '순수의 마지막 보루'라 할수 있는 학문의 세계까지 침투하고 있다. 학업이 깊고 넓은 분이 학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 만사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마음먹기 달렸다). 일찍이 육조 혜능대사께서도 말씀하지 않았던가 본시무일물(本是無一物)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 "본래 아무 물건도 없는데 어

호화분묘 국민위화감 조성...규제 강화해야

“진정한 陰德 유산 사회환원”



시신 도굴사건을 계기로 다시 일부 계층의 호화분묘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수백평이 넘는 신격호 회장의 부친 묘역.

“4대(大)를 받은 사람은 목숨을 마쳐면 지대(地大)는 땅으로 돌아가고 수대(水大)는 물로 돌아가며 화재(火大)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風大)는 바람으로 돌아간다. 어리석은 이나 지혜 있는 이나 목숨을 마쳐면 모두 무너지고 부처져 단멸법(斷滅法)이 되고 만다.”(아함경)

묘소들은 시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법적 규제=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24평, 집단묘지는 기본 1기당 9평, 비석 1개(높이 2m, 표면적 3㎡), 심석 1개, 기타 석물 1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묘지 1기당 허용면적을 개인묘지 9평, 집단묘지는 3평으로 각각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묘지설치 60년 이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했다.

그러나 분묘 1기당 면적이 30~80㎡(9~24평)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일본 4~6㎡, 프랑스 2.5㎡이하, 홍콩 3㎡이하, 미국 2.9㎡이하) 걸치례를 위한 호화분묘는 찾아볼 수 없다. 묘지 순환을 위해 매장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골하는 '시한부 묘지제도'가 많이 도입돼 있어 우리처럼 심각한 묘지난은 생길 여지가 없다. 또 개인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 공설 묘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들 묘지는 동네 주위 공원 등에 조성해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보고 현화하는 등 친숙도가 큰 점도 묘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와 다르다.

불교에서는 육신을 '가아(假我)'라고 한다. 소멸해 없어질 현혹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영구히 남는 것은 불생불멸할 법신(法身)이다. 뒤에 남는 사람들이 시리를 수습해 부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역시 큰 뜻으로 보면 헛된 형상일 뿐이다. 그러나 호화 분묘나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롯데 신격호 회장 부친 시신 도굴사건을 계기로 다시 일부 계층의 호화분묘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회대의 범죄까지 부른 호화분묘는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갖가지 사회적 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화분묘에 묻히는 것보다는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해 자기의 후손들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음덕(陰德)'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묘지규정에 대한 제한을 앞장서 지켜야 할 지도층들의 탈범에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호화 분묘 현황=행정기관에 호화분묘로 적발된 묘소만 90년대 들어서 1백50여개가 넘는다. 적발된 호화분묘들은 전체 묘지면적의 수백평에서 수천평에 이르러, 봉분, 돌레석과 각종 석상, 석탑 등 수천만원대의 장식품을 설치해 왕릉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런

기독교-이슬람 '역사적 악수'

교황-이란대통령 바티칸서 문명의 대화

가톨릭과 이슬람이 마침내 만났다.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 사이의 역사적인 '문명의 만남'이 11일 바티칸에서 이뤄졌다. 양대 종교는 '11세기말부터 2백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 이후 상호갈등으로 절절해 왔다. 이날 만남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간에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황은 25년간의 절경이 끝난 뒤 "오늘은 중요하고 희망을 주는 날"이라고 말했다. 하타미 대통령은 "평화와 화해의 승리"라고 화답했다.



교황(右)과 하타미 대통령.

농업환경 한국 '불량'

OECD 보고서 농약사용량 세계 2위

우리나라의 농업환경 수준은 외국에 비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8일 공개한 '98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환경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스페기를 아황산가스 분야에 서 '우수' △수질 이산화탄소 분야는 '보통' △농업환경 분야는 '불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29개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농업환경 분야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농약은 1년에 가용토지 1㎞당 1.3t을 뿌려 일본 1.4t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 사용량 0.2t 보다 6배이상 많은 것. 질소비료 사용량은 평균사용량 6t의 4배가까운 22.2t으로 회원국중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대기오염원인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연간 34kg으로 OECD 평균 40kg보다 낮다. 폐기물의 경우 1인당 도시쓰레기 발생량은 3백90kg(평균 5백30kg)으로 22위를 차지했고 특히 폐기물 재활용비율은 24로 8위를 기록했다.

생활정보

농협 주말농장 분양개시

농협은 서울 근교와 지방 도시 인근 지역에 모두 1백41곳, 2만4천여평의 주말농장 목장 과수원을 조성, 11일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가격은 주말농장의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 근교지역은 평당 1만~3만원이며 과수원은 그루당 포도나무는 5만원, 사과·배나무는 6만~15만원, 목장은 꽃사슴(1~3년생) 80만원 등이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21~6번)로 문의.

'한복상품권'도 등장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를 위한 한복상품권이 등장했다. 한국선물경보는 지난달 액면가 5만원과 10만원권 2종류의 상품을 선보였다. 전통한복뿐만 아니라 생활한복까지 구매할 수 있어 혼수 예산뿐 아니라 효도선물로도 적격. (02)786-5677

현금서비스 최고 5백만원까지

이달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와 함께 현금서비스 한도가 회사별로 최고 2백만~5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사와 신한은행은 현금서비스 한도제한이 폐지되는 동시에 현금서비스 최고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우다이너스카드를 7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개인전' 같은 아트페어

2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1999 SEAF(Solo Exhibition Art Fair)'는 36명의 중견·신진작가별로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컬렉터들과 만나는 개인전 특성을 형성한 아트페어. 다양한 가격대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 가능. (02)739-0155

개인 퇴직보험 이월중 판매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손해보험사에 대해 퇴직보환 상품판매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보환자들은 이월 중순부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보환을 판매할 예정이다. 금융원은 퇴직보환이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반드시 납입 원금 이상은 보장토록 했다.

'불량식품' 피해 신고하세요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시민의모임 먹거리 피하신고 전용전화(02-720-0328) △소비자연맹(02-795-1042) △주부클럽연합회(02-752-4227) △YMCA(02-733-3181).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천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이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려(靑綠)를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여쭙 말로 다할 수 있리라.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형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주자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형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형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우므로 희생·소멸하여 자식적인 불을 생기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형으로 38족(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둡고 자질(實質)이 뛰어난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인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종자 소나무농장주자 이병에 힘을 합쳐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증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천식(松仙食)]을 만들었다.

Advertisement for Solhyosojungak, Solcheonshik, and Eoksuhyeongjingo. Includes product description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Solhyosojungak: 원액 2,800ml (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Solcheonshik: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Eoksuhyeongjingo: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종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